

[**영 화**]

이번엔 보성발 '역도' 감동 신화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리는 스포츠는 드라마틱한 전개가 필요한 영화의 중요한 소재 중 하나다. 국가대표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애환을 담은 단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은 관객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고, 흥행 역시 성공했다.

오는 7월 2일 개봉하는 '킹콩을 들다'는 역도를 소재로 한 또 다른 스포츠 영화다.

영화 '태풍'의 조감독 출신인 박건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킹콩을 들다'는 미래를 꿈꾸는 소자라는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의 시골 소녀들이 '역도'를 통해 꿈을 이루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우생순'의 감동을 잇는다

'우생순'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처럼 '킹콩을 들다' 역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지난 2000년 제 81회 전국체전. 여자 역도 부문의 15개 메달 가운데 14개의 금메달을 휩쓴 팀이 있었다. 5명의 선수 가운데 4명이 3관왕에 오른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 있다. 역기봉이 없어 대나무로 연습하고 매트리스 한 장이 없어 흙바닥에서 역기를 들었던 시골 여자고등학교 '소녀 역사'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7월 2일 개봉... 시골 소녀들의 금메달 도전기

조안, 직접 역도 들고 몸무게 7kg 늘리기도

보성서 90% 촬영... 박건용 감독 메가폰 잡아

소녀들의 우승 뒤에는 시골 소녀들을 아버지처럼 키웠던 세 명의 역도 코치가 있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정인영과 김용철·윤상연씨가 그들이었다. 역도 스타 전병관을 발굴했던 정인영씨는 전국체전 1년 후 49세의 나이로 학교에서 근무중 순직했고, 김용철 감독은 보성군 역도팀 코치로, 이배영 선수를 역도의 길로 이끈 윤상연 감독은 순창고에서 역도를 가르치고 있다.

영화에는 전병관 선수와 이배영 선수가 짝꿍 출연한다.

▲배우들의 열연

제작진은 뛰어난 연기력과 함께 역도 선수에

어릴림 법한 '체격 조건'도 중요한 캐스팅 조건으로 삼았고, 이범수를 캐스팅했다.

이범수는 실제 역도 선수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 3개월간 혹독한 트레이닝으로 근육을 키웠다. 또 2004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 역도팀 영도철 코치에게 역도의 기본기를 배우기도 했다.

여주인공 '역자'역을 맡은 조안의 노력도 만만치 않았다. '여고괴담', '미' 등에 출연했던 조안은 식이요법과 트레이닝을 통해 한달만에 근육량을 7kg 늘렸다.

촬영 기간인 90일 동안 운동에 멍이 들고 손바닥의 굳은살을 달고 살았던 조안은 체중을 불리고 특수분장을 통해 영락없는 시골 소녀로 변신

했고 촬영에 들어가기 2개월 전부터 시작된 훈련 과정을 통해 상인 남자도 듣기 어려운 역기를 거뜨히 들어올렸다.

보성여중 역도부 5인방으로 출연한 이윤화·최문경·전보미·김민영·이슬비 등 5명의 신인배우들 역시 최고 16kg를 썰고도 연기에 임했다.

또 기주봉·변희봉·우현 등 조연급들의 연기도 불 만하다.

▲보성에서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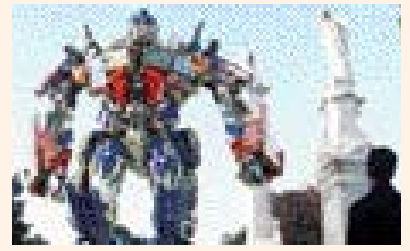
'킹콩을 들다'는 영화의 90% 이상을 보성에서 촬영했다. 보성여중과 보성중 체육관에 메인 세트장을 만들었고, 보성 대나무밭, 보성군 체육관 등도 촬영장으로 활용됐다. 또 카 페라이트 장면에서는 보성군민들이 출연하기도 했다.

88올림픽 동메달리스트지만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 둔 후 시골여중 역도부 코치로 부임한 이지봉은 가진 거라곤 힘밖에 없는 시골 소녀들을 만난다.

타고난 신체 조건이 여자, 모범생 수줍, 아픈 엄마를 위해 역도선수로 성공하고 싶다는 여선 등의 열정에 감동한 이지봉은 아이들을 위해 합숙소를 만들고 본격 훈련에 돌입한다. 열악한 여건을 딛고 승승장구하던 아이들은 마침내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하게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 영화 트랜스포머



지난 2007년 개봉, 745만명을 동원하며 역대 영화 최다 관객 기록을 세운 '트랜스포머'의 속편이다.

'더록', '아일랜드', '진주만' 등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장기를 발휘해온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전편과 마찬가지로 메가폰을 잡았다.

2억 달러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대작으로 다양한 로봇 60여점이 선보인다.

미국, 이집트, 상하이 등 무대도 훨씬 다채로워졌다.

제작비 2억馱, 美·상하이 무대

로봇 60여개 투입 블록버스터

영화는 주인공 소년 샘과 오토봇이 지구에 떨어진 신비의 물질 큐브를 차지하려는 디셉티콘을 격퇴시킨 1편의 2년 후가 배경이다.

고교생이었던 샘은 부모, 여자친구 미카엘라, 밤블비를 고향에 남겨두고 대학입학을 하게 됐다. 샘은 광범한 대학생이 되고 싶은 희망에 부풀지만 신비의 물질 큐브가 몸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거대한 로봇전쟁의 표적이 된다.

먼 옛날 잠들었던 악의 근원인 폴론이 되살아나고, 인류를 위협하는 디셉티콘 군단을 인류를 보호하려는 오토봇 군단의 총력전이 벌어진다.

전편의 주인공 사이아 라보프가 같은 역을 맡았으며 메간 폭스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12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 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www.kjhr.com

공인중개사: 강영희
☎ 0621364-8700
H.P 010-4608-3700

(주)국민법률경매

지역	소재지	면적(㎡)	경매가	최저가
서울	종로구	122/37	1억1천	7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12/34	1억9천	1억1천
	중구	112/34	1억9천	1억1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부산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대구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중구	102/31	8천7백	6천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타운5층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나찰(잔금부족시 최저금액 대출일선)·명도(이사)